

16.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2018. 11. 2. 이현래 목사

[히브리서 11:39~40, 12:1~2]

“39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1:39~40, 12:1~2).”

오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말씀이 요점이다. 11장에는 믿음의 기라성 같은 분들을 다 열거를 했는데도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완성이 안 되었다는 말이다.

3번 주자까지 코스를 잘 달렸지만 아직 4번 코스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고, 4번 코스가 우리 몫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계주자로 간다는 뜻이다. 계주를 할 때 다들 수고 했지만 마지막 영광을 받을 사람은 4번 계주자다.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프로그램이 짜지기를 우리가 4번 주자로 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광을 받을 차례라는 뜻이다. 알고 보면 우리는 아주 행운아들이다. 우리가 아브라함만 하겠는가? 우리가 야곱만큼만 하겠는가? 어림도 없지만 우리는 형편상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경주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다. ‘주’라는 말은 기원자, 근원자로 번역하면 좋겠다. 믿음의 기원자다.

세상에는 믿음이 많다. 더군다나 요즘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굉장히 많다. ‘주여 믿습니다.’하면 이루어지는 일도 많다.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로 기도를 시작한다.

믿는다는 문제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남묘호렌계교를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믿고 해보라는 것이다. 남묘호렌계교를 계속 외워보라고 한다. 소원이나 목표 하나를 앞에 두고 한 달만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나도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 자기도 더 이상 말이 안 되겠으니까 소원을 두고 한번만 해보라는 것이다.

지금 절에서도 중생을 가르칠 때는 발원 기도를 가르친다. 내가 내 속에서 원해서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다. 어느 종교마다 이것이 다 있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도를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아무 필요가 없다. 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것밖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성경을 알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다. 또 그런 종교가 단순하고 또 누구나 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잘되고 사람이 많이 가는 것 같다.

기독교 안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 한국 기독교 안에는 그것이 더 심한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성의 바탕에는 샤머니즘이 깔려 있다. 그래서 빌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이런 사람들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다.

옛날 예화가 있다. 어떤 전도자가 새벽기도를 가는데 고목나무 밑에서 할머니가 빌고 있어서 할머니 무엇 때문에 빌고 있느냐고 물으니 할머니가 이러저러하여 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그런 소원을 하면 이 속이 다 썩어있는 고목나무가 어떻게 응답을 하겠느냐고 했다. 그 할머니가 귀가 있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윗동네에 가면 예배당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들어준다고 했다. 고목나무에게 하면 오죽하면 속이 썩어서 이렇게 되었겠느냐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금방 그 할머니는 그 말을 알아듣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목나무에 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열심히 했을 것이다. 이것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많이 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이 많이 깔려 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예수께서 믿음의 주, 믿음의 기원자라고 한다. 믿음의 기원자다. 시작하신 이다.

왜 예수가 믿음의 시작인가? 이 말이 그 앞에 나온 모든 기라성 같은 모든 믿음의 선열들이 무슨 믿음으로 기도를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면 결국 그 기도는 100살이 되었을 때 응답이 되었다. 그러면 100살이 되어서 응답된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은 아들을 준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여기에 나온 모든 선열들이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전부 이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 가는 믿음인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믿음이다. 내 소원을 성취하러 가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믿음이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은 이 실재를 예수 안에서 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시작이지만 영원한 세계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있어서 이 믿음이 시작된 것이다.

더 올라가서 아담을 보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지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1:26).”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을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다 무엇을 위임하겠다는 뜻인데 무엇을 위임하겠다는 것인가? 네가 나 대신 내 생명을 표현해라는 말이다.

우리는 지어질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어진 것이다. 전구를 보면 왜 전구를 만들어 놓았는가? 그것은 텅스텐에 들어온 전기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처음부터 전구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3,14).”고 했는데 그것이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이다. 우리가 빛나가서 그렇지 제대로 갔으면 사람은 당연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되어있다는 뜻이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예수는 믿음의 주님이요 조상이다.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그것이 안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위임이 없어졌다. 그러면 결국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위임이 없어지면 동물이나 매 한 가지이다. 이 위임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위임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사람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다.

예수는 우리 믿음의 기원자다. 참 믿음의 기원자다. 이분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기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그 믿음의 기원자라는 말이다.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지어진 존재들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향해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지어진 자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목표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원자다. 예수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런 위임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이방인들의 믿음과 뭐가 다른가? 이방인들의 믿음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신념을 갖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믿음은 뭐가 다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어찌면 다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교회 안에서 병을 고치는 믿음도 있고 별 믿음이 다 있다. 간증을 하면 온갖 믿음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 믿음들은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러

고 믿음으로 이랬다 하는 것은 모두 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지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길이니까 우리도 만일 그 믿음을 본받는다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알케라는 말이 기원이라는 뜻이니까 시작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자라는 이 말은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라도, 야곱이 이삭이 아무리 믿음을 향해 살았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던 결과가 만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세상에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는가? 왜냐하면 차라리 우리의 소원을 두고 기도했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만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세상이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줄 알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리고 일생을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말 심하게 핍박받은 사람도 많다고 한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는 조상 제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다. 그 사람들이 만일 자기들에게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믿음의 주요, 시온자여 또 완성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분을 바라보지 않는 다른 것은 하나하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다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만일에 전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고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다. 어떤 형상이니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위임이 없다면 다른 것 밖에 나타낼 것이 없다. 하나님의 위임이 만일 없다면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 역사는 바벨로 가는 역사였다. 무엇을 해도 결국 바벨로 가는 역사이다. 그 안에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역시 바벨로 가는 길이다.

아담 이후에 10대까지 오는 동안에 모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900년 썩 살았으니까

원 없이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죽었다.’는 그것뿐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다 잘 살고 있다. 훌륭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열매가 없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잘 산다. 성실하고 능력 있으면 세상에서는 다 잘 살 수 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지 능력만 있으면 돈도 잘 버는 사람은 굉장히 잘 번다. 아주 쉽게 벌고 재미있게 번다.

그런데 벌지 못하는 사람은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저녁에는 죽 값을 벌어서 온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밥 먹고 죽 빌어 오는 것이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죽 먹고 나가서 밥 가지고 와야 된다.

돈 만원을 가지고 나가서 10만원을 만들어 오는 사람이 있고, 10만원을 가지고 나가서 만원밖에 못 가지고 올 사람도 있다. 살아보니까 세상에는 능력의 차이가 많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살게 되어 있다. 꼭 하나님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믿음의 기원자고 또 온전케 하시는 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육신을 가진 이 인간이 천사보다 월등한 지위에 오른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항상 육신 때문에 열등감을 가졌고, 또 사탄은 항상 우리 육신을 가지고 송사를 했다. 네가 별것을 해도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이 사탄의 마지막 무기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면 사람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산 사람이 있구나. 죽었는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본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모두 보고 있다고 한다. ‘구름 같다’는 말은 많다는 말이다. 뻑뻑하게 경기장에 차있는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이다. 또 어떤 사람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갔다. 그래서 구름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 구름기둥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구름이라는 뜻이 그렇게 두 가지로 사용된다.

구름이 인도자가 되는 것이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 앞서간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무

엇인가를 보여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고 그들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완성을 위해서 간다는 말이다.

이것을 위해서“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망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망신을 당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니까 얼마나 망신인가? 사람이 이보다 더 망신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다.

무시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모두 너 무슨 망신이나고 하는 판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는 것이다.

아담은 결국 이 자리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빗나간 것이다. 아마도 아담의 생각에는 뻔했을 것이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면 나는 뻔하다. 내 운명이 뻔하다. 계속 천사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자리를 이탈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담은 여기서 이탈했다.

예수는 여기서 망신당할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으로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사보다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의 근원적인 수치는 천사에 대한 수치이다.

그는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왜 못 날아다니는가? 이것이 수치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천사를 그릴 때 등에 날개를 달아 놓았다. 인간의 소망을 그려놓은 것이다. 동양 사람들은 그 자리에 용을 그렸다. 용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다. 용은 가상의 동물이다.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점을 뽑아 만든 것이 용이라고 한다. 사람의 소망을 그려 놓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용은 없는 것이다.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망신스럽게 여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위임이 있어야 된다. 위임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보인다.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또 많은가? 다들 자기들을 자랑한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것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부끄러웠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도 몇 천 명, 몇 만 명이 모여 보라.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이 없다. 어디를 가도 당당하다. 그런데 시골에 목회하는 분들은 그런 곳에 가면 쪽도 못 쓴다.

이번에 TV를 보니까 새로 지은 사랑의 교회 사진이 나왔다. 옛날 지하교회로 지었던 사랑의 교회를 가본 적이 있다. 그때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하에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

었다. 이번에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몇 배로 불어났는지 모르겠다. 그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해서 커졌다고 한다.

신문에서는 너무 호화롭게 지었다고 했다.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데 옛날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같은데 그보다 더 큰 것 같았다. 사람이 짝 찼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겠는가? 세상 어디를 가도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약한 사람들은 꼬리를 내려야 한다.

개들이 둘이 만나면 눈싸움을 해보고 꼬리를 내린다. 그러면 물리지 않고 만일 같이 꼬리를 들고 있다가는 영락없이 물려서 죽는다. 우리 집에 강아지 하나를 키웠는데 이 강아지가 꼬리를 내릴 줄 모른다. 큰 개를 만나나 작은 개를 만나나 꼬리를 내릴 줄을 모른다. 꼬리를 내리면 사는데 꼬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큰 개한테 물려 죽었다. 본성이 특이한 개가 있다. 꼬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물려 죽었다.

세상에서는 자기보다 큰 사람을 만나면 꼬리를 바짝 내려야 한다. 아담도 안 되겠으니까 천사를 만났을 때 꼬리를 내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먹으라는 것을 먹은 것이다. 우리도 그럴 뻔 했다.

나도 처음에 목회하러 나가서 천사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웠다. 나는 뭘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해보려고 삼각산으로 여기저기로 쫓아 다녔다. 내 팔자에 없는 짓을 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었다. 뭘 봤다고 하는데 도저히 보이는 것도 없고, 들었다고 하는데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포기는 해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항상 꼬리가 내려졌다.

C.C.C.에 가도 그랬다. 간사 분들 중에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을 보니까 열심히 있고 활력이 넘치는데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꼬리를 내려야 한다.

그런데 그 때는 왜 그랬는가? 내 안에 참된 위임이 없었다. 나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위임이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임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로 위임 받는데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자꾸 인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인격이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격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세상의 능력은 세상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임받는 것은 그 능력이 아니다.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임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난 후로부터는 열등감이 없어졌다. 그전에는 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주눅이 들었다. 여러분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당히 많이 해봤다. 그래서 속

에는 항상 접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다른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했지 속에서 해결이 안됐다.

하나님이 내게 위임한 것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비로소 그것이 없어지게 되었다. 지금은 누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별짓을 다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사람이 약해져 버렸다. 내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참된 위임을 알고 나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이었다. 전혀 소용없는 짓이었다. 사람은 원래 낳을 때, 만들어질 때 위임받을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임을 받아야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전도사로 오래 있으니깐 그것도 부끄러웠다. 다른 사람은 다 안수 받는데 나만 못 받고 있어서 그것도 부끄러웠다. 모든 것이 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위임이면 목사고 아니고 그것도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리스도만 위임 되어 있으면 된다. 그 위임이 참된 위임이고 영원한 위임이다.

이 위임을 가지고 다지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다. 예수님께서서도 이 위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망신이 되면 어떻게 비난하면 어떠냐는 것이다. 아무 관계가 없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모르게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다고 비난을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약점을 들어서 공격을 해도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과 그리스도를 위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완전하게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천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천사보다 나은 위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만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되었다.

12장에 징계를 왜 주는가? 징계가 왜 있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게 하느라고 징계한 것이 아니냐는 논리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잘되라고 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에서처럼 망령된 자들이 있을까 두렵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위임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장자의 명분답게 장자의 위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망령된 자라고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을 무시하면 그만큼 우리는 망령된 자가 된다.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망령된 자가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중요한 위임을 버렸기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계급장을 달아주면 뭐하는가? 그것을 무시하면 자기가 계급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시당해 버리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는 위임장을 위가 무시하면 우리 자신이 무시되고 만다.

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다른 것이 또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것이 없고 그것밖에 내 놓을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도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디가도 다 마찬가지이다. 비교할만한 것이 없다.

만일 그리스도라는 위임이 나에게 없으면 비참하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위임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라는 뜻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직 한곳으로만 바라보라는 뜻이다.

마지막 말씀은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얻은 것과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한 비교를 했다.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유했다. 시내산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불꽃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였다. 진동하는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흑암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나팔소리와 이런 것이 있는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나타난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덩이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이른 곳은 너무나 다른 곳이다. 두려운 곳이 아니다.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못 오게 했다. 접근하지 말라 죽을까 한다고 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데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히12:22~24).”**고 했다.

우리는 지금 모세가 이르렀던 그곳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위임 안에서, 그분과 연합 안에서 우리는 시온산에 이른 것이다. 예수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진동할 것이 없는 나라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진동할 것이 없다. 움직일 수도 없고 흔들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참 비참할 것 같지만 그 자리가 완전한 자리다.

바라보는 자들은 시내산이냐 시온산이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맡기신, 창조 때부터 맡기신, 그것을 맡기기 위해서 창조한, 인생의 위치를 굳게 지킨다면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위임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무시한 것이다. 공연히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겠는가?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만 생각해도 공연히 부르지 않았다고만 생각해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

내가 해보니까 그랬다.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 부름 받았으면 왜 흔들리는가? 부름 받았으면 부르신 이가 다 알아서 할 것인데 왜 흔들리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만 알아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모르겠다. 하물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을 때까지, 그 이후는 나는 모르겠고 목숨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

이것은 누구도 빼어가지 못한다.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다. 더 이상 비난 없는세계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것이 신약이고 복음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전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세상과 우리는 경쟁해서 이기지 못한다. 같은 경기장에서 경쟁해서 이기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교회들이 모두 어떻게 하면 세상 앞에 지지 않을까 하지만 지지 않을 방법이 없다. 다른 코스에서 달려야지 그 코스에서 같이 달려서는 이길 방법이 없다.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서구 문명을 타고 왔으니까 세상이 뭔가 좀 부러운 것이 있었다. 선교사들을 보면 부러웠다. 그런데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큰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 몇 십만 원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서초동에 가면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만족이 되겠는가? 아무것을 주어도 안 된다.

우리는 같은 레일에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 같은 트랙에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트랙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에 왔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동치 못할 나라에 왔다. 내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에 기라성 같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할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만나 봐도 그렇고, 안 만나 봐도 그렇고, 만나도 똑같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나와 길이 다르니까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전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되었다. 결산을 해보니까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빼려고 애를 쓴다는데 빼려고 해도 뺄 것이 없다.

무소유라고 자랑을 하는데 무소유고 소유고 할 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무소유인가? 그것

이 호사스러운 생각이다. 있는 사람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이지 아예 없는 사람은 있니 없니 이런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영원한 위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것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위임을 했다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일이다.

나를 완전하게,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대로 내 뿔을 높여준 일이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것이 이렇게 축복한 것이다. 나를 세상이 부럽지 않은 사람으로 축복한다. 세상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축복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 축복 안에서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뭐가 있어서 풍부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풍부하다.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 가져 갈 것도 없고 놔둘 것도 없다.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자꾸 결산을 해보는데 이것이 가져갈 것도 없고 놔두고 갈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풍족한지 모르겠다.

여러분도 모두 다 그렇게 되실 것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자랑하고 싶고,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고 싶다. 이것이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일이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세계에 왔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세계, 진동치 못할 나라이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 부럽기는 좀 부럽다. 그것은 내 맘대로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최고로 귀한 존재로 위임하셨으니까 그분을 우리가 뚫어지게 바라봐야 된다.

사도시며 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중보자로서의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목표점을, 결론점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위임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다. 위임만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